

## 도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협력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 남 회

전 우 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해 떠올리도록 한 후,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시골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도시가 점화되었을 때 세상을 보다 공정한 곳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점화한 후, 죄수의 딜레마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시골 관련 개념보다 도시 관련 개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보다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어 : 점화,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도시, 시골, 협동

---

\* 본 연구는 2015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전우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E-mail: wooyoung@cnu.ac.kr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사회에 속해 있다. 작은 사회인 가정과 보다 큰 사회인 국가의 범주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회적 동물(social animal)이라 부르기도 한다. 17, 18세기 철학자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발생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Hegel, 1821, 1989; Hobbes, 1651, 1968; Edwards, 2009).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Hobbes는 ‘국가’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상을 자연상태로 정의하였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부정적인 자유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Hobbes는 이러한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war of all against all, Hobbes, 1651)’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받았으므로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Hobbes는 야만적인 자연상태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국가에 위임하고, 이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는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다. 철학자들마다 시민사회나 국가의 성격에 대한 기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Locke와 Rousseau 등 Hobbes 이후에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철학자들 역시 사회적 계약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부 희생하는 것에 동의한다(Locke, 1698, 1960; Rousseau, 1762, 1968).

18세기 철학자들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국가(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정부)나 시장과 구별되는 우리 사회의 일부이며, 협동, 신뢰, 관용 등 도덕적인 가치를 육성하는 영역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담론을 주고받는 공적인 영

역으로 묘사된다(Edwards, 2009).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신뢰가 필수적이며, 국가(정부), 시장(경제사회), 시민사회 간에 체결된 사회적 계약을 기초로 한다(Axelrod, 1984; Axelrod & Hamilton, 1981; Edwards, 2009). 또한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 중 일부를 시민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체결된 사회적 계약을 토대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체적 사회를 형성한다. 이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같은 제도나 규칙을 만들며, 시민사회에 권리를 위임한 시민들은 이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과 시민사회 사이에 암묵적으로 체결된 사회적 계약,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같은 사회 제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시민사회와 협력적 행동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연구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행동 즉, 협력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hariff와 Norenzayan(2007)은 신과 관련된 개념의 점화가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연구 1)를 토대로 신뿐만 아니라 사법체계(justice system)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도 타인을 향한 협력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 2). 연구자들은 문장구성과제(scrambled sentence task)를 통해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예, 시민, 법원, 경찰, 계약)을 점화한 후에 자신이 받은 10달러를 타인과 나눠가지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점화된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가 점화된 조건의 참여자들은 상대방에게 10달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달러에 가까운 금액(4.4달러 vs. 통제조건 2.6달러)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적 개념의 점화뿐만 아니라 법이나 사회적 계약과 같은 사회제도와 관련된 개념의 점화 역시 개인의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개인의 협력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Gervais & Norenzayan, 2012). 연구자들은 서구 사회에서 무신론자(atheist)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점화가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점화된 조건의 사람들은 통제조건의 사람들보다 무신론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예, 나는 무신론자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불편하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캐나다의 대학생(연구 2)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성인(연구 3)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의 점화는 도덕적 민감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Yilmaz와 Bahçekapili(2015)는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의 참여자들에게는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문장구성과제를 통해 실험참여자들에게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을 점화하였다. 반면에 다른 집단의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으로, 시민사회와 무관한

단어로 문장구성과제를 수행하였다. 점화절차가 끝난 후 실험참여자들은 비도덕적 행위가 묘사된 시나리오(예, 중요한 회의에 늦어 급하게 운전하고 가던 중, 자신이 고양이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부상당한 고양이를 내버려둔 채 가버리는 행동)를 읽고 비도덕적 행위를 한 시나리오 속 인물에 대해 얼마나 비난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제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이 점화된 조건의 참여자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해 더 비난한 것으로 나타났다(Yilmaz & Bahçekapili, 2015, 연구 3). 이러한 연구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점화가 개인이 보다 더 협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타인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감소시키며,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시민사회와 도시 점화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사회는 개인, 국가(정부), 그리고 시장 사이에 체결된 암묵적인 계약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사회가 발생하고 전개되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인가? 대다수 시민사회는 정치사회(국가나 정부)와 시장·경제사회가 발달한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강대현, 2004; 조명래, 2001).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이자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이 모여 부족(마을)을 이루고, 이러한 부족들이 모여 더 큰 규모의 체계인 도시를 형성한다. 기존의 소규모 체계와 달리 도시와 같은 거대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나 정부와 같은 정치 체계와 시장·경제 체계를 만들게 된다. 즉, 시민사회는 소규모 부족(마을)이 아닌 정치, 사회적 조직을 필요로 하는 도시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발달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간적인 배경이 도시라는 것은 시민사회 구성원을 이르는 시민(citizen)의 어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시민이란, 단순히 한 개인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polis)나 치비타스(civitas)와 같은 도시(국가)에 형성된 정치 공동체 구성원을 말한다(박효중, 이진희, 2005). 이를 종합하면, 시민사회는 도시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발달하고, 이러한 도시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켜 시민이라고 한다(신진욱, 2009).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자 시민사회의 물리적 배경인 도시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시민사회와 그의 공간적인 배경인 도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도시에 대한 접화가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라는 물리적 환경을 접화하고 도시 접화가 공정성과 관련된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접화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물리적 환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생각만으로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Aarts & Dijksterhuis, 2003; Kay & Ross, 2003; Kay, Wheeler, Bargh, & Ross, 2004). Aarts와 Dijksterhuis(2003)에 따르면, 도서관을 묘사한 사진을 30초 동안 제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관련된 사진을 본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조용함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하거나, 더 작은 소리로 말하는 등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규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소에 가지 않고, '월가(Wall Street)'에 대한 접화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Kay & Ross, 2003). Guéguen, Jacob, 그리고 Ardiccioni (2012)는 현장실험을 통해 해변에 대한 접화가 해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300여명의 레스토랑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건에 따라 해변

접화 조건의 참여자들은 해변 배경이 프린트된 메뉴판을 제공받은 반면에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은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가구가 프린트된 메뉴판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난 후에 조건에 따라 고객들이 주문한 메뉴를 분석한 결과, 통제 조건 참여자들에 비해 해변 접화 조건의 참여자들이 해산물을 주문한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장소(예, 도서관, 월가)에서 더 나아가 지역이라는 더 큰 범주의 공간적인 배경 역시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박상희, 김혜숙, 2009). 특히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 대한 접화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김남희, 전우영, 2014). 연구자들은 식역하(subliminal) 접화절차를 사용하여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도시 접화가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험참여자들은 조건에 따라 도시 접화 조건과 시골 접화 조건으로 나뉘었으며, 도시 접화 조건의 경우, 도시와 관련된 단어들(예, 시골과 관련된 단어들)이 식역하로 제시된 반면에 시골 접화 조건의 경우에는 시골과 관련된 단어들(예, 시골과 관련된 단어들)이 식역하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난 후에 애매한 행동을 한 인물에 대한 기술문을 읽고 기술문 속 인물의 유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시골이 접화된 참여자들보다 도시가 접화된 참여자들이 기술문 속 인물에 대해 보다 더 유능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 결과는 물리적 환경의 접화가 특정 환경과 밀접하게 연합된 규범적인 행동이나 소비(예, 도서관-정숙한 행동, 도시-유능함, 해변-생선 소비)를 활성화시켜 개인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연구문제

시민사회 연구자들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도시라는 공간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유팔무, 2004; 조명래,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공간적인 배경인 도시에 대한 점화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무의식적인 점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정성(fairness)은 자원의 동등한 배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Jain, Chiu, & Hawe, 1984).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개념은 이후에 공정한 세상에 관한 이론(just-world theory)으로 발전하였다(Lerner, 1980). 공정한 세상에 대한 이론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공정성과 마땅히 받을만한 결과(deserving)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공정한 세상에 관한 믿음(BJW; belief in just world)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상을 공정한 곳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타인을 향한 협력적인 행동(예, 상대방의 요청을 수락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uckerman, 1975). 이를 토대로 연구 1은 도시와 시골 점화가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에 앞서, 물리적 환경의 점화가 세상을 공정한 곳으로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 점화가 공정성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개인의 협력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만약 도시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 계약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시골이 점

화되었을 때보다 도시가 점화되었을 때 세상을 보다 더 공정한 곳으로 믿고, 보다 더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을 떠올렸을 때 떠오른 것을 기술하도록 한 후,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 또는 시골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의 기분이 매개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 방법

### 실험참여자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총 74명(남성 10명, 여성 6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8.72세( $SD=.9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참여자들을 도시( $N=39$ ) 또는 시골( $N=35$ ) 개념 점화조건에 무선할당하였다.

### 도구 및 실험절차

실험동의서 작성이 끝나면 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이미지를 상상해보라고 요청하였다. 점화 조건에 따라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를 떠올렸을 때 고층 빌딩, 상가, 자동차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골을 떠올렸을 때는 벼, 논, 밭, 소, 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시 점화는 김남희와 전우영 (2014)에서 사용된 식역하 점화 절차가 아닌 식역상(supraliminal) 점화 절차를 사용하였다. 식역하 점화와 달리 식역상 점화 절차에서 참여자들은 점화 자극(예, 도시 vs. 시골)을 인지한다. 또한 식역하 점화 절차와 달리 식역상 점화 절차에서는 무관한 과제(unrelated task) 패러다임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점화를 위한 과제와 이후에 종속변인으로 측정하게 되는 과제가 서로 독립적인 과제라고 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점화 자극과 종속변인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믿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식역상 점화 절차에서 참여자들은 점화 자극에 대해서만 인지할 뿐 점화 자극이 이후에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한다(전우영, 2013). 점화하고자 하는 개념을 활성화시키는데 식역하와 식역상 점화 절차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Bargh & Chartrand, 2000)과 생태학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식역상 점화 절차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을 점화하였다.

도시 또는 시골 점화가 끝난 후에 기분("현재 귀하의 기분은 어떻습니까?")에 대해 7점 척도(1=매우 부정적이다, 7=매우 긍정적이다)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기분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ulman & Wortman, 1977; Dalbert, 1998, 1999; Lerner & Somers, 1992). Barling과 Mendelson(1999)는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슬픔(sadness), 분노(anger), 그리고 불안(anxiety)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개인의 기분이 매개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기분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곧바로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Dalbert, Montada, & Schmitt, 1987) 척도에 응답하였다. 공

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는 '나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공정한 곳이라고 믿는다.', '나는 항상 정의가 불의를 앞설 것이라고 확신한다.'와 같이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 상에 응답하였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6(Dalbert, 1993)부터 .88(Montada, Schmitt, & Dalbert, 1986)에 걸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4였다.

## 결 과

### 점화 조건에 따른 기분

점화 조건에 따른 기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 점화 조건( $M=4.46$ )과 시골 점화 조건( $M=4.40$ )에 따른 기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_{(72)}=.20, p=.841$ .

### 점화 조건에 따른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화 조건에 따라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도시 또는 시골 점화 조건에 따라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72)}=2.13, p<.05$ . 즉,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시골( $M=3.07$ )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도시( $M=3.41$ )가 점화되었을 때 실험참여자들은 세상이 보다 더 공정한 곳이라는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점화 조건에 따른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척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인 3점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표본  $t$  검증(one-

표 1. 점화 조건에 따른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평균 (표준편차)

	점화 조건	
	도시(N=39)	시골(N=35)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3.41(.76)	3.07(.61)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 점화 조건의 경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3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_{(38)}=3.41, p=.002$ . 그러나 시골 점화 조건의 경우에는 3점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_{(34)}=.69, p=.494$ .

관계를 살펴본 김지경(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와 협력적인 행동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있어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보고하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협력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 1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문장구성과제(SST)를 통해 도시 개념에 대한 무의식적인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결론 및 논의

연구 1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점화가 세상은 공정한 곳이라는 믿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골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도시가 점화되었을 때 세상을 보다 공정한 곳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 또는 시골 점화 조건에 따른 기분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의 기분이 이를 매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에 대한 점화가 세상에 대한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2를 수행하였다.

### 연구 2

연구 1은 도시에 대한 점화가 세상을 보다 공정한 곳으로 지각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협동행동 간의

### 방 법

#### 실험참여자

연구 1에서 참여하지 않은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총 77명(남성 24명,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sup>1)</sup>. 실험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92세( $SD=2.1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참여자들을 도시( $N=37$ ) 또는 시골( $N=40$ ) 점화조건에 무선할당하였다.

1) 점화 조건이 협력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점화조건: 도시, 시골) x 2(참여자 성별: 남성, 여성)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점화 조건과 성별의 이원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_{(1, 73)}=1.79, p=.184$ , 성별의 주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_{(1, 73)}=3.13, p=.081$ . 그러나 점화 조건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 73)}=8.93, p=.004$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점화 조건에 따른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자의 성별이 조절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 및 실험절차

실험동의서 작성이 끝난 후에 도시 또는 시골 개념 점화를 위해, 실험참여자들에게 단어를 재배치하여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문장구성과제(scrambled sentence task, Srull & Wyer, 1979)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문장구성과제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5개의 문장에는 도시 또는 시골점화를 위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도시 점화조건에서는 도시 관련 단어(예, 자동차, 백화점, 아파트)가 문장완성과제에 포함되었고, 시골 점화조건에서는 시골 관련 단어(예, 초가집, 논밭, 경운기)가 포함되었다. 각 조건에 대한 점화단어들은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 또는 시골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던 단어들을 점화단어로 선정하였다.

도시 또는 시골 점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끝나고 난 후에, 실험참여자들은 문장구성과제와는 독립적인 실험으로 소개된 두 번째 실험에 참여하여 죄수의 딜레마 과제를 수행하였다(Kay & Ross, 2003). 죄수의 딜레마 과제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상대방을 믿고 협력적인 선택을 할지, 아니면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경쟁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2x2매트릭스를 제공받았다. 2x2매트릭스는 실험참여자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실험참여자와 상대방이 모두 'A'를 선택할 경우, 두 사람 모두 10,000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참여자와 상대방이 'B'를 선택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

두 2,500원만 획득하게 된다. 만약, 실험참여자와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은 'A'를 선택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B'를 선택한다면, 'B'를 선택한 사람은 20,000원을 획득하지만, 'A'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그림 1). 이들의 선택은 5점 척도(1=A선택, 3=A와 B를 선택할 확률이 50/50, 5=B선택) 상에서 이루어졌다. A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이 공정하게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협력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반면, B를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금액만을 생각한 경쟁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보다 협력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반면에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수의 딜레마 과제를 마친 후에 실험참여자들은 인지적 부하(cognitive load)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지금 귀하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분주함을 느끼십니까?")에 응답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자신이 지각한 인지적 부하의 정도를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개념이 복잡함, 시끄러움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생각으로 전체 응답 중 10.14%가 붐비는, 급한, 빠른, 복잡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0%는 시끄러움, 소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상대방			
		A		B	
당신	A	당신  +10,000원	상대방  +10,000원	당신  0원	상대방  +20,000원
	B	당신  +20,000원	상대방  0원	당신  +2,500원	상대방  +2,500원

그림 1. 죄수의 딜레마 과제의 의사결정 매트릭스



연구에서는 시골 점화 조건에 비해, 도시 점화 조건에서 복잡함 또는 시끄러움과 같은 개념을 활성화시켜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죄수의 딜레마 과제에서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참여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과제의 이해도(“과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를 9점 척도(1=전혀 어렵지 않다, 9=매우 어렵다) 상에 응답하였다. 과제 이해도에 대한 응답이 끝난 후, 본 실험의 목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험참여자들 가운데 실험의 목적에 대해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실험절차가 종료된 후, 실험참여자들에게 실제 실험의 목적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실험을 종료하였다.

## 결 과

### 인지적 부하 및 과제의 이해도

도시 또는 시골 점화 조건에 따라 실험참여자들의 인지적 부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도시 점화 조건( $M=5.73$ )과 시골 점화 조건( $M=5.47$ )에 따른 인지적 부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_{(75)}=.61, p=.547$ .

또한, 점화 조건에 따른 죄수의 딜레마 과제의 이해도 지각에 있어서도 도시 점화 조건( $M=3.11$ )과 시골 점화 조건( $M=4.00$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_{(75)}=-1.63, p=.108$ . 이와 더불어 실험 종료 후, debriefing 과정에서 죄수의 딜레마 과제의 난이도를 다시 확인한 결과, 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 죄수의 딜레마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은 참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점화 개념에 따른 죄수의 딜레마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평균(표준편차)

	점화 개념	
	도시(N=37)	시골(N=40)
협력적 의사결정	2.43(1.63)	3.33(1.51)

주. 점수가 낮을수록 협력적인 선택(A),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적인 선택(B)을 의미함.

### 점화조건에 따른 의사결정

점화 조건에 따른 죄수의 딜레마 과제에서의 의사결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 또는 시골 점화 조건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75)}=-2.50, p<.05$ . 즉,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참여자들은 문장구성과제를 통해 시골( $M=3.33$ )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도시 개념( $M=2.43$ )이 점화되었을 때 보다 협력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및 논의

연구 2에서는 문장구성과제(SST)를 통해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과 관련된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점화하였다. 그리고 난 후에 죄수의 딜레마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점화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골이 점화된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도시가 점화된 조건의 참여자들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보다 더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시골 개념이 점화되면 도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보다 더 경쟁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점화 조건에 따라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뤄진 의

사결정이 척도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3점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 점화 조건의 경우, 의사결정이 3점 즉, 협력적인 선택(A)과 경쟁적인 선택(B)을 할 가능성이 50/50인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36)}=-2.12, p=.041$ . 도시 점화 조건의 참여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보다 더 협력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시골 점화 조건의 경우에는 50/50인 선택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_{(39)}=1.36, p=.181$ .

추후 연구는 도시 점화가 협력적인 의사결정에서 더 나아가 도덕성(moral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덕성은 상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의, 권리, 그리고 복지에 관한 판단으로, 이타성과 공정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Haidt, 2007; Turiel, 1983). 김용훈, 류리나, 그리고 한성열(2012) 역시 도덕성을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라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도움행동이나 공감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공정성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덕성을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으로 구분한 이러한 관점은 도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자들의 설명과 일치한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도덕성의 이타적 차원과 일치하며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도덕성의 공정성 차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도덕성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에 관한 이들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것으로 도덕성을 구성하는 차원 중 공정성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도시 점화가 협력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행동(예,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대한 점화가 공정성과 관련된 개인의 믿음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을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 점화한 후,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2에서는 문장구성과제를 통해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과 관련된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점화하였다. 그리고 난 후에 죄수의 딜레마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 대한 점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다 더 공정한 곳이라고 믿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분이나 인지적 부하에 의해 조절되거나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 대한 점화가 인지적 부하, 기분, 그리고 구조화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김남희, 전우영,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점화가 공정성 지각과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점화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 1, 2는 도시와 시골 점화 조건만을 비교했을 뿐 통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 점화가 공정성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시골이 점화된 조건과의 비교를 토대로 한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조건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가정대로 도시 개념이 세상을 더 공정한 곳으로 지각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인지 혹은 시골 개념의 점화가 세상을 불공정한 곳으로 인식하고 더 경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든 것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출신지역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와 시골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에게 도시 지역은 자신에게 더 친숙한 내집단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김범준, 2002).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시골을 떠올렸을 때보다 도시를 떠올렸을 때 보다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점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출신지역이나 도시에 거주한 기간을 통제 한 후에도 도시 점화가 공정한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가 보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와 달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 Lederbogen과 그의 동료들은(2011) 18세부터 80세에 이르는 대도시 거주자 또는 시골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뇌 활성화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골지역 거주자보다 대도시 거주자들의 편도체(amygdala) 영역의 활성화가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리적 기제를 바탕으로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스트레스 취약성을 설명하고 있다. 도시와 시골 거주민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도시 지역의 높은 인구밀도가 이웃 간 익명성과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들의 불안과 우울을 높였을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Walters, Breeze, Wilkinson, Price, Bulpitt, & Fletcher, 2004). 이러한 연구들은 낮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도시라는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 시골에 비해 도시 지역을 보다 부정적으로 생각(예, 범죄, 빈부차이 등)하거나 정신건강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연구 결과들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라기보다 연구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uner(1957)는 특정 자극이나 범주의 제시가 이와 관련된 개념을 활성화시켜 정보처리의 준비성(readiness)을 촉진시키는 현상을 ‘접근가능성(access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점화를 통해 특정 자극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곧바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점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활성화된 개념에 대한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이 존재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iggins, Rholes, 그리고 Jones(1977)는 ‘조심성 없는’과 같은 특정한 성격특질을 점화한 후 이후의 애매한 행동을 하는 인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격특질의 점화 효과는 인물의 행동이 이전에 점화된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실험실에서 참여자들에게 목마름을 점화하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험실 밖으로 뛰쳐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경우에 목마름 점화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Strahan, Spencer, & Zanna, 2002).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라는 개념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 점화는 도시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개념들이 모두 개인의 행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제나 상황에 적용가능한 개념만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도시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도시와 관련된 물리적 환경(예,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 길에서 산책)을 경험한 이후에 스트레스 반응, 우울 등을 측정하였다(Bratman,

Hamilton, Hahn, Daily, & Gross, 2015; Keizer, Lindenberg, & Steg, 2008; Lederbogen et al., 2011). 부정적인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측정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도시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타인과의 의사결정 상황을 측정했기 때문에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 중 협력이나 공동체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해 도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연구 1)과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연구 2)을 각각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도시 점화가 협력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변화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도시 개념에 대한 점화가 세상을 더 공정한 곳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상호 협력적인 행동을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Edlund, Sagarin, & Johnson, 2007).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도시 점화가 사회적 계약이나 사회적 합의를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 공정성에 대한 신념이나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의 점화와 마찬가지로, 종교나 신(God)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역시 개인의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cKay, Efferson, Whitehouse, & Fehr, 2011; Pichon, Boccato, & Saroglou, 2007; Preston, Ritter, & Hernandez, 2010; Randolph-Seng & Nielse, 2007; Shariff & Norenzayan, 2011). Shariff와 Norenzayan (2007)은 신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점화가 공정하거나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제안하였다. 신이나 시민사회가 도덕적이거나 공동체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이나 시민사회가 점화되면 도덕적인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신이나 다른 집단 구성원과 같은 타인의 존재가 평판에 대한 염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이기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설명을 토대로 도시 점화의 효과를 살펴보면, 도시가 사회적 계약이나 협력적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공정한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혹은 타인의 존재가 활성화되어 개인의 공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골에 비해 도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더 자주,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시골보다 도시가 점화되면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 받는 평판에 대한 염려나 사회적 불안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즉, 협력적인 행동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도시 점화가 평판에 대한 염려나 불안을 유발시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시민사회와 도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서구의 시민사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Edwards, 2009). 한국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도시라는 공간을 토대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서구의 시민사회 발달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신진욱, 2009; 조명래, 2001).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서구의 시민사회와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 발달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과 같이 권력에 대한 투쟁을 토대로 발달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의식의 내면화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한 서구 시민사회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강대현, 2004).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 도시, 그리고 사회적 계약의 관

런성에 대해 서구와 한국 시민사회의 차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라는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태도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도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현대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나 도시화에 의해 야기된 가치관의 변화나 만성질환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김은정, 강민규, 2011; 한규석, 신수진, 1999)에 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도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현 (2004). 시민사회, 한국시민사회 그리고 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9, 57-76.
- 김남희, 전우영 (2014). 도시와 시골 개념의 점화가 이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41-159.
- 김범준 (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1-17.
- 김용훈, 류리나, 한성열 (2012). 도움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공감과 공정성이 도움행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3), 349-366.
- 김은정, & 강민규 (2011). 도시환경과 개인특성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27(3), 27-42.
- 김지경 (2006).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이 사회적 딜레마상황에서 협동행동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31-44.
- 박상희, 김혜숙 (2009). Where are you from? 지역 고정관념에 따른 언어 기대 편파 (LEB).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03-125.
- 박효중, 이진희 (2005). 밀의 시민성에 대한 일고찰. 아시아교육연구, 6(1), 201-224.
- 신진욱 (2009). 시민. 서울: 책세상.
- 유광무 (2004). 한국의 시민 사회와 새로운 진보. 서울: 논형.
- 전우영 (2013). 프라임링: 나를 움직이는 무의식. 서울: 21세기 북스.
- 조명래 (2001). 도시, 갈등, 시민성, 한국사회, 4, 31-82.
- 조명래 (2011). 시민사회의 공간화: 지역시민사회에 관한 소고. NGO연구, 7(1), 1-15.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Aarts, H., & Dijksterhuis, A. (2003). The silence of the library: environment, situational norm,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8-28.
- Axelrod, R., & Hamilton, W. D. (1981).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11(4489), 1390-1396.
- Axelrod, R.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Y: Basic Books.
- Bargh, J. A., & Chartrand, T. L. (2000). A practical guide to priming and automaticity research. In H. Reis & C. Judd(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pp. 253-28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ling, J., & Mendelson, M. B. (1999). Parents' job insecurity affects children's grade performance through the indirect effects of beliefs in an unjust world and negative mood.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4(4), 347-355.
- Bratman, G. N., Hamilton, J. P., Hahn, K. S., Daily, G. C., & Gross, J. J. (2015). Nature experience reduces rumination and subgenual prefrontal cortex activ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28), 8567-8572.
- Bruner, J. S. (1957). On perceptual readiness.

- Psychological review*, 64(2), 123-152.
- Bulman, R. J., & Wortman, C. B. (1977). Attributions of blame and coping in the "real world": Severe accident victims react to their l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5), 351-363.
- Dalbert, C. (1993). Gefährdung des Wohlbefindens durch Arbeitsplatzunsicherheit: Eine Analyse der Einflußfaktoren Selbstwert und Gerechte-Welt-Glaube. *Zeitschrift für Gesundheitspsychologie*, 1, 235-253.
- Dalbert, C. (1998). *Belief in a just world, well-being, and coping with an unjust fate*. In L. Montada, & M. J. Lerner (Eds.), Responses to victimizations and belief in a just world (pp. 87-105). New York: Plenum Press.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 79-98.
- Dalbert, C., Montada, L., & Schmitt, M. (1987). Belief in a just world-validation correlates of 2 scales. *Psychologische Beiträge*, 29(4), 596-615.
- Edlund, J. E., Sagarin, B. J., & Johnson, B. S. (2007). Reciprocity and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3), 589-596.
- Edwards, M. (2009). *Civil society*. Polity.
- Gervais, W. M., & Norenzayan, A. (2012). Reminders of secular authority reduce believers' distrust of atheists. *Psychological Science*, 23(5), 483-491.
- Guéguen, N., Jacob, C., & Ardiccioni, R. (2012). Effect of watermarks as visual cues for guiding consumer choice: An experiment with restaurant menu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1(2), 617-619.
- Hegel, G. W. F. (1989).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H. B. Nisbet,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21)
- Haidt, J. (2007). The new synthesis in moral psychology. *Science*, 316(5827), 998-1002.
- Higgins, E. T., Rholes, W. S., & Jones, C. R. (1977). Category accessibility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2), 141-154.
- Hobbes, T. (1968). *Leviathan* (C. B. Macpherson Ed.). London: Pengui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651)
- Jain, R., Chiu, D. M., & Hawe, W. R. (1984). *A quantitative measure of fairness and discrimination for resource allocation in shared computer system* (Vol. 38). Hudson, MA: Eastern Research Laboratory,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 Kay, A. C., & Ross, L. (2003). The perceptual push: The interplay of implicit cues and explicit situational construals on behavioral intentions in the Prisoner's Dilemm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6), 634-643.
- Kay, A. C., Wheeler, S. C., Bargh, J. A., & Ross, L. (2004). Material priming: The influence of mundane physical objects on situational construal and competitive behavioral choi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5(1), 83-96.
- Lederbogen, F., Kirsch, P., Haddad, L., Streit, F., Tost, H., Schuch, P., Wüst, S., Pruessner, J. C., Rietschel, M., Deuschle, M., & Meyer-Lindenberg, A. (2011). City living and urban upbringing affect neural social stress processing in humans. *Nature*, 474(7352), 498-501.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erner, M. J., & Somers, D. G. (1992). *Employees' reactions to an anticipated plant closure: The influence of positive illusions*. In L. Montada, S. H.

- Filipp, & M. J. Lerner (Eds.), Life crises and experiences of loss in adulthood (pp. 229-25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ocke, J. (1960).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98)
- McKay, R., Efferson, C., Whitehouse, H., & Fehr, E. (2011). Wrath of God: religious primes and punishment.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278(1713), 1858-1863.
- Montada, L., Schmitt, M. & Dalbert, C. (1986). *Thinking about justice and dealing with one's own privileges: A study of existential guilt*. In H.W. Bierhoff, R. Cohen & J. Greenberg (Eds.), Justice in social relations (pp. 125-143). New York: Plenum Press.
- Peen, J., Schoevers, R. A., Beekman, A. T., & Dekker, J. (2010). The current status of urban rural differences in psychiatric disord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21(2), 84-93.
- Pichon, I., Boccato, G., & Saroglou, V. (2007). Nonconscious influences of religion on prosociality: A priming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5), 1032-1045.
- Randolph-Seng, B., & Nielsen, M. E. (2007). Honesty: One effect of primed religious represent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7(4), 303-315.
- Rousseau, J. J. (1968).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 (H. J. Tozer, Trans.). London: Penguin Classics. (Original work published 1762)
- Shariff, A. F., & Norenzayan, A. (2007). God is watching you priming God concepts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Psychological Science*, 18(9), 803-809.
- Shariff, A. F., & Norenzayan, A. (2011). Mean gods make good people: Different views of God predict cheating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1(2), 85-96.
- Srull, T. K., & Wyer, R. S., Jr. (1979). The role of category access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Som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660-1672.
- Strahan, E. J., Spencer, S. J., & Zanna, M. P. (2002). Subliminal priming and persuasion: Striking while the iron is ho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6), 556-568.
- Turiel, E. (2006). *Thought, emotions, and social interactional processes in moral development*.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7-35). Mahwah, NJ: Erlbaum.
- Walters, K., Breeze, E., Wilkinson, P., Price, G. M., Bulpitt, C. J., & Fletcher, A. (2004). Local area deprivation and urban - rural differences i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people older than 75 years in Britai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0), 1768-1774.
- Yilmaz, O., & Bahçekapili, H. G. (2015). When Science Replaces Religion: Science as a Secular Authority Bolsters Moral Sensitivity. *PLoS ONE*, 10(9), e0137499.
- Zuckerman, M. (1975). Belief in a just world and altruistic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5), 972-976.

1 차원고접수 : 2016. 04. 08.

수정원고접수 : 2017. 04. 25.

최종게재결정 : 2017. 05. 16.

## **Effects of priming city concepts on belief in just world and cooperative decision-making**

**Namhee Kim**

**Woo Young Ch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wo studies examined the possibility that information relevant to the concepts of city and rural areas can influence belief in just world(BJW) and cooperative behavior. In study 1, participants were asked to imagine city(vs. rural) areas. In an ostensibly unrelated second task, participants responded to BJW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perceived the world as a more fair place when the concepts of city(vs. rural) area were primed. In study 2, we used a scrambled sentence task(SST) for implicitly priming the concepts of city or rural areas. After completion of the priming procedure,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a second, ostensibly separate experiment in which they were asked to make a decision in a prisoner's dilemma game.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primed with the city concepts made more cooperative decisions than those who were primed with rural area concepts. The implications of present study for cooperative decision-making are discussed.

*Keywords : priming, belief in just world, city, rural area, cooperation*